

월곡 2동 고려인마을, 스마트한 공동체로 거듭난다

올부터 4년간 국비 등 229억원 투입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 참여 탄력 무인 주차공유시스템·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 등 '상생복합플랫폼' 구축

광주시 광산구 월곡2동 '고려인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하 고려인 마을사업)'이 주민 참여로 탄력을 받고 있다. 고려인마을사업은 목련로와 산정로를 중심으로 주민과 고려인, 이주민이 어울려 사는 월곡 2동 15만 3000㎡가 대상이다. 올해부터 4년간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을 비롯한 기금과 민간자본 등 총 229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더불어 상생하는 월곡 고려인마을'을 비전으로 ▲상생하는 월곡 ▲찾고 싶은 월곡 ▲살기 좋은 월곡 ▲꿈꾸는 월곡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가운데 가장 많은 127억원을 투입, '상생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상생복합 플랫폼은 주민과 고려인, 이주민이 상생하며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복지·건강·취업·창업·문화·예술·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커

뮤니티 공간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 마을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는 사업으로, '맞춤형 일자리 연결서비스', '무인 주차공유 시스템' 등이 대표 사업이다. 여기에 화재 발생과 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해주는 '안심 케어 서비스'와 '세계 음식 메뉴 다국어 소개', '생활정보 다국어 실시간 서비스' 등도 스마트폰 앱(app)으로 제공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 포함돼 오는 11월 개관예정인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은 국내 유일의 마을박물관으로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인 연구가 김병학씨가 중앙아시아에서 수집한 역사유물 1만2000여점과 고려인 관련 희귀 사료와 문학·예술·사진 등 각종 자료들이 전시 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도시재생은 결국 사람과 문화를 살리는 것"이라며 "사업에 주민과 고려인,



김삼호 광산구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 4월 광주 광산구 월곡2동 도시재생사업 서포터즈 위촉식에 참석해 서포터즈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이주민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월곡동 고려인마을이 세계적인 다문화 마을로 거듭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고려인마을사업은 광산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지난해 10월 최종 선정됐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방역수칙 잘 지킨 목욕업소 3일 만에 집단감염 위기 벗어나

광산구 첨단...출입자 명부 작성 등

광주시 광산구 첨단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켜 집단감염 위기에서 벗어난 목욕업소가 있어 화제다. 22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광산구 첨단 16일 골바로 이 목욕탕을 폐쇄하고, 역학조사에 나섰다. 역학조사 과정에 해당 업소는 "지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해왔고 출입자 명부도 꼼꼼하게 작성해왔다"면서 "목욕탕 안내소가 있는 건물 4층의 승강기 운영도 중단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밝혔다. 이 업소는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접촉자 확인을 위해 목욕탕에서 일하는 직원은 물론 임대업소, 용역업체 직원 정보까지 제공하는 등 역학조사에도 적극 협조했다. 업소는 또 CC-TV 확인을 통해 확진자와 동시간대에 방문한 손님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역학조사팀에 제공하기도 했다. 업소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접촉자 등을 파악한 역학조사팀은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58명에게 개별 문자를 전송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도록 안내했으며,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청사 동산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100그루 식재...코로나19 지친 시민들 위로

광주시청사 무궁화동산에 무궁화 꽃이 만개했다. <사진> 무궁화동산은 광주시가 의병항쟁과 독립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한 의항 도시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나라꽃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시청사 시민숲에 무궁화 100그루를 심어 조성했다. 무궁화동산에 심은 무궁화는 6월 25일경부터 첫 꽃이 피기 시작해 광복절(8월 15일) 즈음 만개

하는데 올해는 기후변화로 개화 시기가 빨라져 앞으로 2주간 절정을 이룬 후 9월까지 매일 피고 질 것으로 보인다. 강영천 광주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많은 시민들이 시청사 정원을 찾아 야간 소나무 경관 조명과 만개한 무궁화를 보며 지친 일상에 힘을 되찾고 위로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군공항소음 피해보상, 민간공항과 형평성 맞춰야"

광산구 등 '군지협', 국회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 공청회'

광주 광산구 등 전국 16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이하 군지협)가 21일 국회의사당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군지협과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이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 형평성을 맞춰 피해 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엔 군사시설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시·군·구민 200여명이 참석하고, 강문수 헌법재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준호 한국공항

공사 차장과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장 등의 발제가 이어졌다. 각 지방의회 의원들도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보상·지원과 형평성 보장 등이 담긴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채택했으며, 서명부도 작성했다. 이 서명부는 평택시가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한다. 군지협 부회장인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반세기 넘도록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군소음 피해 주민이 관련 법령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먹는 물 분야 국제인증 획득

미국 시그마 알드리치 RTC 평가서 6년 연속 국제수련도 '적합'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미국 시그마 알드리치(Sigma-Aldrich RTC)가 주관하는 먹는물분야 국제수련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6년 연속 국제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Sigma-Aldrich RTC는 세계 각국의 환경 관련 실험실의 분석능력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 국제실험실인증협력기구(ILAC)가 인증한 국제수련도 시험평가기관이기도 하다. 국제수련도 시험은 국제적수준의 분석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실시되며, 방법은 일정농도의 물질이 함유된 미지시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후 검증기관

에 제출하면 분석결과를 상호비교해 적합(Acceptable) 또는 부적합(Not Acceptable)으로 평가하게 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먹는물분야 평가항목인 이온류, 금속류, 농약류, 휘발성유기물질 등 17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시험·검사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국제인증 획득으로 측정정확성과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속 정확한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철저한 수질관리로 신뢰받는 분석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전기화물차 80대 추가 보급

20%는 취약계층 등에 우선 배정

광주시가 전기화물차 80대를 추가 보급한다. 시는 앞서 올해 상반기 전기화물차 70대 보급했으며, 추가 수요를 반영해 보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보급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한다. 신청자격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며, 출고 순으로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대상 차종은 초소형 5종, 경형 1종, 소형(1t) 4종 등이며, 보조금은 전기화물차 한 대당 762만~2400만원이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영업점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정동훈 광주시 기후대기과장은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은 대기질 개선과 함께 자영업자 등 전기화물차 구매자의 부담 또한 낮추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창사 32년 (주)YHB ECO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